

주부들의 비 신체적 자각 증세와 혈청 Ca 및 Mg 농도와의 관련

김연심, 김현주,* 박귀선.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dopamine을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치료제로 사용하거나 verapamil을 칼슘봉쇄제(calcium channel blocker)로 사용하였을때 중추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혈청 중의 칼슘, 마그네슘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보고와, 변화하지 않는다는 보고와 함께 정신 분열증 환자에게서 칼슘, 마그네슘의 혈중 농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실제로 조증환자에게서 칼슘의 증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고, 칼슘의 정신적인 작용에 관한 관심이 모여 지고 있다. 원래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의 자극전달 역할을 하는 물질로 칼슘은 신경을 흥분시키고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칼슘혈증에서 피로, 통증, 허약의 비특이적 증상에 이어 우울, 착란, 무기력, 우유부단, 기억력 상실 및 슬픔과 같은 정신병학적 증상의 발현이 있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고 칼슘혈증이 치유될때 이러한 증상들도 유의하게 감소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저 칼슘혈증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약, 피로, 불안, 혼수, 등의 정신적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고 있으므로 조증 환자와 칼슘, 마그네슘의 혈중 수준 사이에는 유관성이 있으며, 아직 결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부들은 갱년기 장애를 겪으면서 우울, 불안등 정신적 장애를 호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즐겁고 행복한 플러스 감정을 갖일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인 마음가짐과 혈청중의 칼슘, 마그네슘의 농도와의 관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험1)에서 주부 대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에 설문 조사와 혈청중의 칼슘, 마그네슘 농도를 측정하였고 (실험2)에서 Ca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경험이 있는 22명을 따로 표집하여 Ca 제제 복용 전후의 심리상태를 조사를 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채혈하여 혈청중의 칼슘, 마그네슘을 측정하였다.

(실험 3)에서 설문 조사 결과 높은 점수대의(high group) 희망자들에게 시판 Ca제제를 복용시킨후 부정기적인 전화상담으로 Ca제제 복용후의 심리적인 변화를 기록하였으며 3주 간격으로 2번 설문조사와 혈청중의 칼슘, 마그네슘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지 조사 결과 우울과 불안의 점수대가 high group에 속하는 사람이 low group보다 수가 많았고, high group에서는 39-45세의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2. 우울, 불안 점수 수준과 혈청 중의 칼슘, 마그네슘의 농도는 high group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3. 골격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서 치료 전후의 심리적인 항목 우울 및 불안 점수 수준은 치료후에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4. 시판 칼슘 제제를 복용한 후의 우울 및 불안의 심리검사 수준은 유의적으로 낮아 졌다.